몽골 밝은미래학교

- 김생기 선교사 / 2003. 2. 13 -

96년 5월.. 국내에 오신 선교사님과의 만남은 참으로 저의 인생에 특별한 만남이였습니다.

이분은 권능 선교사님 이라는 분이셨는데, 몽골 지역 선교사님 이셨고, 몽골에 길거리 어린이들을 위한 재활학교를 설립하는 이 이분의 비전이셨습니다.

그분께서 몽골의 현실, 사회가 갑자기 개방화되면서 겪게 되었던 혼란들, 극심한 가정파괴로 인한 고아들, 버려진 아이들.. 이들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들을 나누면서, 이런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고 싶다는 비전을 나누셨습니다.

저는 이분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밥을 먹을 수 없었고, 몽골의 아픔을 듣게 되었고, 그분의 비전이 저의 비전으로 취해지는 마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나가 있지 않았던 몽골이라는 땅에 대해 특별하게 다가오게 되었고, 저는 몽골의 아이들을 본적은 없었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의 씨앗을 주님이 심겨주신 것 같았습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중보기도 모임을 만들고, 함께 학교를 알릴 사람들과 동역하면서 브로셔를 만들고, 슬라이드 자료를 만들고, 발로 각 교회나 소그룹 모임을 찾아다니면서 이들을 알릴 때, 점점 몽골 아이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과 보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자라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그 당시, 학교가 개교되기 위해, 학원을 하시는 집사님에게 가서 학원책상을 수집하고 (후에는 아이들과 함께 용접하고, 패인트를 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가서는 숟가락, 의자 등을 헌물 받으며, 컨테이너를 몽골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밝은미래학교는 97년도에 개교를 했습니다. 3명이 기도했던 기도모임이 60여명 정도가 함께 기도하는 모임이 되고, 제가 파송을 받게 되면서 인터콥 수원지부라고 형태를 갖추어 가면서, 후에도 간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파송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감사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99년 5월 선교지에 파송되 오게 되었고, 제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가서 언어를 배우고 있을 당시, 아이들과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은 할 수 없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 누렁이 30배 되는 냄새와 주먹이 들어갈 만 큼 큰 아이들의 옷이 눈에 들어와 바늘을 가지고 옷을 꾀매 주었습니다.

열심히 꾀매 주었던지 아이들이 처음에는 구멍난 옷이 쑥쓰러워 제대로 내놓지 못했던 아이들이 옷을 너도 나도 가지고와 하루 종일 옷만 꿰맸던 기억이 납니다.

많은 사람이 헌신하고 나가는 것 같은데, 막상 선교지에 가면 왜이리 사람은 없는지..

어쩔 때는 눈이 많이 오는 날 은 눈을 치우러 나가기도 하고, 눈 치우다가 박스를 나를 일이 있다면, 나르기도 하고, 갑자기 교육청에서 사람이 온다고 하면 옷을 갈아입고, 서류들을 준비하고, 교무실에 앉아 있다가 어떤 아이는 도끼로 다친 손을 싸매달라고 오고...
(몽골의 밝은미래 아이들은 대부분 뗄감을 떼어 사용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정신이 없는 시간이였습니다.

단기팀이 놓고 간 의약품들을 분류정리해서 아이들 간단한 드레싱이나 감기약정도는 주는 불법의료행위를(?) 하다보니, 아이들이 약을 타러 오는 아이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정말 아파서 약을 받으러 오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어떤 아이들은 약을 받는 것이 좋아서 오는 아이들 크게 두부류로 나누어 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방법은 한 아이에게 어디가 아프냐, 언제 아프게 되었냐, 가정 형편은 어떤지, 이것저것을 길게 이야기 하다보면, 정말 약이 필요한 아이들은 오랫동안이지만 기다리게 되고, 덜 아픈 아이는 가게 되어 자연스럽게 줄이 정리되기도 했습니다.

상담교사를 해야지.. 이런 구체적인 생각은 없었지만, 상담실을 따로 운영한 것은 아니지만, 약을 주면서 이것저것 물어보았던 아이들의 가정 상황이 궁금해지면서 가정을 방문하게되고, 그 아이 들이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면서 아이들은 저의 마음에 저는 아이들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다니지 못했던 3년 이상 갈 수 없었던 이들은 어느새 1,2회 고등학교 졸업생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고, 국립대학교, 국립기술대학교 등 11명의 졸업생중 10명이나 대학에 진학하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전원이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시설,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없었지만, 복음을 공개적으로 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하신일이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이들이 치유되어야할 일들이 많지만 이들 안에 이미 생명이 있기에 주님의 생명력이 이들을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약하고 미련한 것들을 들어 지혜롭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의 권세가 우리 아이들을 통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어떤 아이는 쓰레기를 주어서 팔아 지금도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총장의 상장을 받고, 자신이 고철을 두들겨 펴서 집담도 만들고, 유리조각을 붙혀 창문을 만들어 집접 집을 일년동안 손으로 건축하고, 복음에 안티적이였던 아이는 교회에서 멧세지를 전하는 아이로 변하고, 이제는 함께 후배들을 위해 가정방문도 같이 하고, 기도모임도 같이 하겠다는 아이들을 볼때 주님이 이들을 키우셨음을 봅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를 갑자기 교실에서 끌어내어 공장에 취직시킨 일, 이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라며 어머니를 만류할 때, 구타당한일, 사랑하던 아이가 갑자기 임신한일, 살인죄를 선고 받고, 10년형을 언도 받았던 억울한 사건, 재정이 바닥나 배추를 팔았던 일 등등.. 아픈 발을 동동 구르며 어찌할 바 몰랐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주님은 고통가운데 함께 계셨고, 이들을 잡고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선교는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영광의 현장 가운데,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초대하시고, 함께 볼 수 있도록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 하면 믿어지는 것처럼 결점투성이의 저를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사랑하는 양들을 맡겨 주십니다. 많은 계획보다 주님이 한걸음 한걸음 인도하시는 세미한 음성에 순종할때, 주님이 하는 일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선교지를 가기 전 저희 아버님은 교회에 다니시지 않으셨습니다.
20여년 간을 교회와 발을 끊으신 아버지를 보며, 어떻게 내가 선교사로 갈 수 있나 생각하고, 괴로웠지만 계속적으로 주님은 저보다도 저희부모님을 사랑하신다는 마음을 주셨고, 그저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선교지로 나갔을 때, 2년 정도 사역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주님께 돌아오셨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저를 위해 아픈 곳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제 성대에 혹이 없어지는 기적을 통해 저희 가족 모두는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선교사로 나가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고, 온전케 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선교지 현지에 가장 무엇이 필요한가 유연한 눈으로 본다면 주님의 필요를 본다면 우리의 틀을 내려놓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함께 공동체로 섬긴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시간에 도움의 손길을 보내시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갖추었다는 자보다 부족하며, 배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가 더 좋습니다.
하나님은 배운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겸손할 때 사용하시고, 부족한 자도 사용하십니다.
연약함을 십자가에 통과만 되었다면, 영혼을 섬기는 도구로 아픔도 사용하십니다.

사망의 공짜기를 다니지 않으면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하고, 안위하심도 못 느낍니다.
원수의 목전에 서지 않으면, 기름으로 바르시는 것을 못 느낍니다. 광야에 있을 때 성소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평생소원은 주님을 닮아 가는 것입니다.

안전노선이 아닌 좁아 보이더라도, 내 상태가 어떻더라도, 상황을 보지 말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온누리칼럼」 제공